

국제캠 대운동장 인조잔디로 탈바꿈 예정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국제】국제캠 체육시설 전면 개보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멀티미디어교육관 앞 대운동장에는 인조잔디가 깔리고 하키장과 테니스장 개·보수가 계획됐다.

천연잔디 구장인 대운동장은 관리 부족으로 제 기능을 잃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곳곳에 파인 흙으로 부상 위험도 상당했다.

예산 문제로 진척될 수 없었던 대운동장 문제는 올해 20억 원의 재원 조달로 해결한다. 수원시 투자 제안도 있었다. 지역주민에게 토요일 오전 시간에 대운동장을 개방하는 대신, 대운동장 보수에 투입할 공사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본부는 수원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육상 트랙은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랙 자리의 양궁장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캠 대운동장은 관리 부족으로 제 기능을 잃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 예산 문제로 진척될 수 없었던 대운동장 문제는 올해 20억 원의 재원 조달로 해결한다. (사진=대학주보DB)

최희섭 행·재정부총장은 “육상 트랙을 깔기 위해 양궁장 이전을 고려했으나, 반드시 남북 방향으로 지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제한이 걸린 것”이라며 “일단은 육상 트랙 없이 인조잔디부터 까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고 설명했다.

필드하키부 훈련 이외에도 풋살장으로 쓰이는 필드하키장과 함께

테니스장 또한 12억을 들여 개·보수를 진행한다. 부지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 부분 방수 공사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을 통해 업체가 정해지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대략 한 달 정도의 공사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은 한 달 뒤에 진행한다.

행복기숙사 앞 서울캠 대운동장도 인조 잔디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학교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운동장 개선사업은 검토 당시 양캠 모두 고려됐다. 하지만 서울캠은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부총장은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지만 인조 잔디를 깔게 되면 그에 따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입학식과 졸업식, 임시 행사를 치를 때마다 대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그 숙제를 아직 풀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양캠 동아리인의 축제 제2회 설국교류전 개최

정유현 기자 uhy2on03@khu.ac.kr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설국교류전’이 양캠에서 열렸다.

설국교류전은 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와 국제캠 중앙동아

리연합회(중동연)가 주관하는 양캠 중앙동아리 교류를 위한 행사다. 부제목은 ‘화합(火合)’으로, 경쟁 속에서도 화합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하나의 경희를 의미한다.

1일 차엔 국제캠에서 양캠 체육분과 동아리 간 친선경기가 이뤄졌

고, 2일 차엔 서울캠에서 양캠 공연분과 동아리 간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공과대학 농구장에서 ‘SNAP’(국제)와 ‘HORIZON’(서울) 간 농구 경기가 열렸다.

테니스장에서는 ‘LOVICE’(국제)와 ‘쿠타’(서울)의 테니스 경기를 진행했다. 서울캠 ‘HORIZON’이 1점 차로 농구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테니스에선 국제캠 ‘LOVICE’가 8개의 경기 중 6승을 챙겨 승리했다. 제2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동아리 ‘LIONS’(국제)와 ‘BRAVES’(서울)

의 경기는 ‘BRAVES’의 2점 차로 승리로 끝났다.

공연분과 동아리 간 경쟁은 서울캠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발라드림’(서울)과 ‘바람개비’(국제)의 공연이 분위기를 달궜다. 이어진 힙합 부문에선 ‘바운스’(서울)와 ‘래빈’(국제)이 특색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경희중앙선’(서울)은 ‘탈무드’(국제)와 열정적인 밴드 공연을 펼쳤다.

한편, ‘AMFC’(국제)와 ‘고황대회 운영위원회대표팀’(서울)의 축구 경기 도중 선수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공과대학 앞 필드하키장은 바닥이 벗겨지고 곳곳에 흙이 파여 있어 부상의 위험이 상당한 상태였다. 경기에 참여했던 고황위원대회운영위원회 김동현(미디어학 2021) 위원장은 “필드하키장에서 경기하는 것에 꽤 우려가 있었고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요구를 해둔 상황이었다”며 “부상 자체가 경기장 탓에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필드하키장이 축구 경기에 적합하진 않았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라 일부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